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0호 [루게 제23282호] 주체99 (2010)년 11월 26일 (금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해방산기슭에 새로 건설된 살림집과 개건된 평양무용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해방산기슭에 새로 건설된 살림집과 개건된 평양무용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최룡해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박정순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수도건설총국장 양인국동지, 수도건설총국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승호동지를 비롯한 수도건설부문과 평양무용대학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수도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해방산기슭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일떠세우고 평양무용대학개건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유서깊은 해방산기슭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을 돌아보시였다.

해방산기슭에 건설된 살림집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쾌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도시민들에게 안겨주시는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다.

해방산의 아름다운 풍치와 조화를 이루며 특색있게 건설된 주택지구에는 수



백세대의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과 각종 편의시설들은 물론 공원구역까지 훌륭히 꾸려져 주민들의 생활에 최대의 편의를 보장해줄수 있게 되어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도건설자들이 방대한 건설공사를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해제진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각이한 형식으로

건설된 여러 살림집들의 내부를 돌아보시며 살림방의 크기와 부엌가시대의 쓸모, 창고의 통풍정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민들의 가정생활에 편리하게 잘 꾸려진 살림집들의 내부에 볼수록 희한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살림집들을 또다시 안겨줄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해방산기슭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은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만점짜리라고

하시면서 최상급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훌륭히 완공한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택지구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짧은 기간에 이처럼 웅장화려한 살림집들을 일떠세운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수고를 거듭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또 하나의 특색있는 현대적주택지구를 우리의 건재, 우리의 기술로 훌륭히 일떠세운것은 우리 당의 건축혁명사상의 정당성과 우리의 자립경제의 잠재

력에 대한 시위로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주택지구를 돌아보시고 수도 평양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력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시를 혁명의 수도답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해서는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과 리론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수도 평양을 명실공히 혁명적수령관이 철저히 구현된 도시, 인민의 도시로 건설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도 평양시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세계적인 도시로 꾸려나가기 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거리형성과 도로건설, 각종 건축물들의 배치와 형식을 특색있고 전망성있게 하며 고도의 인민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교육, 보건, 체육, 문화후생 시설들과 편의봉사기지를 잘 배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부문에서는 우리 당이 제시한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특히 도시목화를 비롯한 문화적인 환경조성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개건된 평양무용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후대교육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에 의해 웅장화려하게 변모된 평양무용대학은 주체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실현된 대학에는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된 기본교사들과 무용극장, 기숙사, 체육실, 문화후생시설들을 비롯한 모든 교육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평양무용대학이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무용예술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의 무용예술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2 면으로 계속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해 방 산 기 습 에 새 로 건 설 된 살 립 집 과 개 건 된 평 양 무 용 대 학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었 다



1 면 에 서 계 속

건설자들은 후대들에게 훌륭한 배움을 안겨주시려는 어버이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할 불타는 열정을 안고 대중적응운주의를 발휘함으로써 방대한 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축물형성과 내부구조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어리어있는 사적자료들을 보시고 대학이 걸어온 영광에 찬 로정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무용대학은 창립후 지난 60여년간 유능한 예술인재들

을 수없이 키워냄으로써 주제예술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시면서 대학이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현대적인 편습실들과 품위있게 꾸려진 무용극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과 교육설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무용대학은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되고 모든 교육시설들도 무용예술교육의 전담답게 잘 갖춰져있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대학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건설자들이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미적지향과 요구에 맞는 건축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기 위하여서는 새롭고 독창적이며 특색있는 건축형식을 적극 탐구하고 만들어내어 건축의 조형예술성을 끊임없이 혁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고 하시면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교직원, 학생들의 학습과 연구사업에 편리하게 개건된 평

양무용대학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라고 하시면서 교육교양사업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학생들을 재학기간 높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재능있는 예술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자질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높이며 보다 훌륭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우리 당의 예술교육사상과 문예이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질과 학과실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대학을 주제 무용예술교육의 전당으로, 무용인재육성기지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학의 교수교양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무용예술교육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감으로써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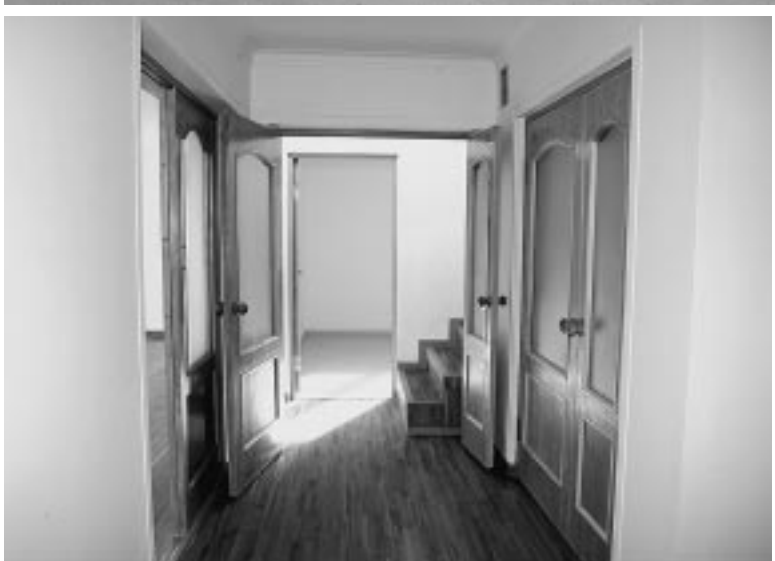
수도건설자들과 평양무용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진두지휘하시며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는데 한몫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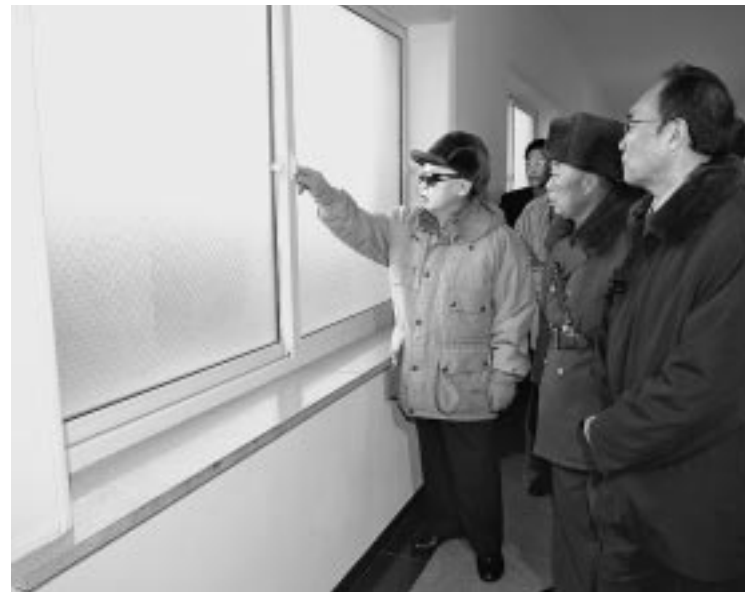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해 방 산 기 습 에 새 로 건 설 된 살 림 집 과 개 건 된 평 양 무 용 대 학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었 다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해 방 산 기 습 에 새 로 건 설 된 살 림 집 과 개 건 된 평 양 무 용 대 학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었 다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해방산기슭에 새로 건설된 살림집과 개건된 평양무용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원군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성실성으로 원호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개성시구역관리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10여년간 조국방선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군인들에게 많은 원호품을 마련하여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원군은 최대의 애국이라는 것을 명심한 안변군 화산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인민군대원호사업에 모든것을 바치고있으며 평양가금지도국 문수봉원료사업소 종업원들도 군인들을 친절유치처럼 여기면서 원군 사업을 잘하고있다.

만경대구역보육원 학교 교직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부대의 군인들을 여러해동안 성의껏 원호하여 그들이 전투정치훈련에서 큰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외교단사업국 승용차수리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최첨단전선건설에서 위훈을 떨치고있는 군인건설자들과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을 성의껏 도와 주고있으며 평양면옥 제3작업반 종업원들은 초소에 내세운 친자식들을 위한 심정으로 많은 원호품을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우리 혁명의 제일기둥이며 주력군인 인민군대가 있어 사회주의조국이 수호되고 가정의 행복도 담보된다는 것을 깊이

이 자각한 강령도사아병원 의사 리원호, 만경대구역편의봉사사업소 로동자 리창화의 가정, 원산시생물공급소 로동자 조춘실, 함흥학생소년회관 지도교원 한세욱, 개성시 개포시장관리소 소장 함명철, 금강산봉수관리국 로동자 림은향은 인민군인들을 물질방면으로 원호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감사를 크나큰 영광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앞으로 인민군대원호사업을 잘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인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각하

각하

나는 각하께서 수리아에서의 시정운동 40돐에 즈음하여 현대적이고 발전된 수리아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끊임없는 성과를 거둔것을 축원하는 진결한 축전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성과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0년 11월 22일

디마스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회창군에 있는 모안영동지의 묘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모안영동지의 전사 60돐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모안영동지의 묘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25일에 진정되었다.

회창의 댁기에는 《모안영렬사를 추모하여》라는 글발이 씌어져있었다.

본사기자

회창군에 있는 모안영동지의 묘에 화환을 진정

【평양 1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모안영동지의 전사 60돐에 즈음하여 25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그의 묘에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모안영동지의 묘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화환진정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와 조중천선협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인 최창익동지, 평안남도 회창군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회창군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류용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추소제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TV연속극 《모안영》 제작단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나라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화환진정식이 울리는 가운데 인민무력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평안남도당위원회와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회창군당위원회와 회창군인민위원회,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중국TV연속극 《모안영》 제작단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모안영동지의 묘에 진정되었다.

중국TV연속극 《모안영》 제작단의 명의로 된 화환이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묘에 진정되었다.

화환들의 댁기에는 《모안영렬사는 영생할것이다》,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들은 영원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들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조선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희생된 모안영동지와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이러 참가자들은 회창군에 있는 전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를 참관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를 23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3일 보도를 발표하여 조선인민군이 이날 조선측 명해에 포사격을 가한 남조선의 군사적도발에 단호한 군사적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모교방문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서문길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모교방문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적사과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를 방문하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생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소박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어 혁명의 길에 나서시었다.

경애하는 주석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대표단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은총속에 현대적으로 꾸러진 김일성종합

대학 전자도서관과 수령관을 돌아보았다.

단장은 모교에 대한 깊은 추억을 가지고 대학을 참관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세계에 자랑할만 한 일류대학이다.

대학생들이 나라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천리마계장면 합기업소, 대안천선유리공장, 사리원시 미륵협동농장 등을 참관하였다.

중국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 모교방문단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진행

중국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 모교방문단 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이 24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있었다.

모임에 앞서 방문단성원들은 통남산마루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서는 김일성대학 교수 서문길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모교방

중국농림수리공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만경대를 방문하니 그이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진다.

주석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었다.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뜻을 지니신 그이께서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업수행에 모든것을 바치시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모택동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로세대 혁명가들과 함께 중조친선관계를 마련하여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중국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

이밖에 대표단은 주체사상과 개신문,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 정부 위생 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진숙 위생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정부 위생 대표단이 24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적사과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몽골국가선포 86 86기념 사진 전시회 개막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과 몽골사이의 친선동맹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발전하여온데 대하여 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각하

각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5일 농림수리공회 전국위원회 부주석 강남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농림수리공회대표단, 김립대학 교수 서문길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모교방문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김정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주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 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으며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적으로 사회주의조국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

의 마음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중국농림수리공회대표단 단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조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게 되신다고 썼다.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중국 정부 위생 대표단 경의의 정 표시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각하

각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23일 진숙 위생인민행복을 위하여 환경생물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정부 위생 대표단이 경의의 정을 표시

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손님들은 나라의 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환경생물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정부 위생 대표단이 경의의 정을 표시

통적인 대응방식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이 감히 조선의 명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대응태세를 계속 가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평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를 23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3일 보도를 발표하여 조선인민군이 이날 조선측 명해에 포사격을 가한 남조선의 군사적도발에 단호한 군사적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은 벌어진 사례의 진상을 오도하는 못된 악습을 버려야 한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미군 측에 통신문 발송

평양

【평양 1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11월 23일 남조선피괴화전광들은 조선서해 우리측 명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은 그 무슨 《호국》이라는 북침전쟁연습을 벌여놓고 감히 우리 명해에 포사격까지 가해온 도발자들에게 즉시적이고 단호한 물리적대응 타격을 가하였다.

이것은 우리 조국의 신성한 명해를 건드리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추호도 용서치 않는 우리 군대의 드림없는 철의 림장을 다시금 확증한것으로 된다.

그러나 미군측은 이번 포격적인 저들의 군사적도발에 있는 지역에서 벌여졌으며 그 무슨 《정전협정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구실밑에 우리를 결

중국 정부 위생 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진숙 위생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정부 위생 대표단이 24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평양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적사과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몽골국가선포 86 86기념 사진 전시회 개막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과 몽골사이의 친선동맹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발전하여온데 대하여 언

해방과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환경생물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정부 위생 대표단이 24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적사과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몽골국가선포 86 86기념 사진 전시회 개막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과 몽골사이의 친선동맹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발전하여온데 대하여 언

전국적맹일군들과 직평원들의 독창, 독주경연 진행

전국적맹일군들과 직평원들의 독창, 독주경연이 남중청년문화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되었다.

평양

경연에는 평양시와 각 도시, 군경연에서 선발된 100여명의 직평일군들과 직평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뜻깊은 올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창업을 일으키는 과정에 중중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벌이며 림마애는 기량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그들은 불우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조선의 모습》, 정취한 직평일군들과 직평원들 리마선구자의 노래, 《영변의

비단치녀》를 비롯한 가요들과 5대혁명가곡의 노래들, 민요들을 풍부한 성량으로 훌륭히 형성하였다.

또한 가야금, 송골금, 하모니카 등의 악기를 가지고 세련된 기교로 《3대리망가》와 《초소의 봄》, 《결정의 길로》를 비롯한 독주곡들을 연주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명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는 나날에 전국적맹일군들과 직평원들속에서 꽃피는 중중문화예술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경연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직평일군들과 직평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던 우리 나라 정부문화대표단 귀국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던 김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문화대표단이 25일 려차로 귀국하였었다.

평양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던 김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문화대표단이 25일 려차로 귀국하였었다.

비행장에서 강하국 보건성